

우즈

“연승 계속된다” “연승 멈춰주마”

경주

내일 CA챔피언십 개막 ... 올 시즌 세번째 대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시즌 승률 100%와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새삼 해묵은 각종 기록 경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즈가 갖고 있는 기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대 대회 연속 컷 통과 기록이다. 우즈는 1998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42개 대회 연속 컷을 통과했다. 이는 앞으로 절대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이 될 전망이다.

무한질주 어디까지...

각종 기록 경신 관심

가 이미 세운 기록보다 앞으로 깰 기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우즈가 샘 스니드가 갖고 있는 최대 우승 기록(82승)을 넘어선다. 2006년 8승, 지난해 7승을 올린 우즈의 페이스를 감안하면 2009년 시즌 중반이면 니클러스(73승)를 따라 잡고 빠르면 2010년에 스니드를 추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즈가 40대 중반까지 선수 생활을 계속한다면 100승 고지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니클러스가 갖고 있는 메이저대회 최다승(18승) 기록도 이미 13개의 메이저 왕관을 수집한 우즈가 뛰어 넘을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게 대체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출전한 7개 대회에서 한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은 우즈가 바이런 넬슨(미국)이 갖고 있는 11연승을 깰 수 있을 지 내기까지 걸리는 분위기이다. 더구나 투어 일정에 반드시 메이저대회가 끼는 탓에 이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랜드슬램’ 달성과도 맞물린다. ‘그랜드슬램’은 1년 동안 4개 메이저대회를 모조리 우승하는 것을 말한다. 우즈는 지난 2000년 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챔피언십을 차례로 제패한 뒤 이듬해 마스터스 그린재킷을 차지해 4개 메이저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업을 이뤘다.

한편 대부분 전문가들은 우즈도 깨지 못할 기록도 있다고 지적한다. 11연승의 대기록을 세운 넬슨이 갖고 있는 시즌 최다승 기록(18승)이다. 우즈가 연간 15~16개 대회만 출전하기 때문이다.

통산 삼금 부문에서도 8천만 달러에 100달러가 모자라는 우즈에 비해 5천553만 달러를 벌여 2위를 달리고 있는 비제이 싱(파키)에 3천만 달러 앞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즈가 이미 세운 기록보다 앞으로 깰 기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우즈가 샘 스니드가 갖고 있는 최대 우승 기록(82승)을 넘어선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무한 질주를 막을 선수는 누구일까.

2008년 시즌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우즈의 독주에 다른 선수들이 숨죽인 가운데 한국산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나섰다. 최경주는 2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날드골프장 블루코스(파72·7천266야드)에서 개막하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CA챔피언십에서 “이번에는 내가 타이거를 막아보겠다”며 도전장을 던졌다.

최경주는 1월 열린 소니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우즈가 출전해 우승한 뷰익인비테이셔널에서 컷 탈락, 악센추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8강 맞대결에서 패했다. CA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세번째 대결을 하게 된 최경주는 출전을 앞두고 “대회가 열리는 이번 코스는 내가 좋아하는 곳”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경주는 작년 대회에서 공동 19위에 오르며 이 코스를 경험했고 PGA 투어 공식 홈페이지(pgatour.com)는 우즈와 어니 엘스(남아공) 다음으로 최경주를 파워랭킹 3위에 올려 놓았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우즈를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달 앞으로 다가온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제패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우즈는 1999년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CA 챔피언십으로 바뀐 2007년까지 무려 여섯차례나 우승컵을 수신했다.

특히 우즈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우승한데다 올해 대회는 작년과 같은 도날드골프장에서 다시 열린다. 이 골프장에서 특히 18번홀(파4. 467야드)은 평균 타수가 4.625로 PGA 투어가 열리는 골프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홀로 꼽힌다.

한편 CA 챔피언십이 치러지는 같은 기간 푸에르토리코 리오 그란데의 트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오픈이 열려 일본프로골프 신인왕 출신 이동환(21)과 재미교포 박진(31.테르스틱스)이 출전한다.



내가 좋아하는 코스

이번에는 꼭 꺾는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우즈를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달 앞으로 다가온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제패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우즈는 1999년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CA 챔피언십으로 바뀐 2007년까지 무려 여섯차례나 우승컵을 수신했다.

한편 CA 챔피언십이 치러지는 같은 기간 푸에르토리코 리오 그란데의 트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오픈이 열려 일본프로골프 신인왕 출신 이동환(21)과 재미교포 박진(31.테르스틱스)이 출전한다.

이승엽 3년 연속 개막전 4번 가능할까

日 센트럴리그 28일 개막...임창용과 맞대결 기대

일본프로야구가 20일 퍼시픽리그를 시작으로 7개월 열전에 돌입한다.

16일까지 시범경기를 모두 끝낸 퍼시픽리그는 20일 니혼햄-지바 롯데의 삿포로돔 대결로 막을 올린다. 이승엽과 이병규(34·주니치 드래곤스), 임창용(32·야쿠르트 스왈로스) 등이 속한 센트럴리그는 23일까지 시범 경기를 치른 뒤 28일 개막한다.

일본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대만에서 연일 팽타를 휘두른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일본으로 자리를 옮겨 3년 연속 요미우리 개막전 4번 타자 자리 확보에 도전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센트럴리그 개막을 열흘 앞둔 18일 현재 개막 3연전 중순 타순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개막 보름 전에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이승엽-루이스 곤잘레스를 클린업트리로 배치하는 타순을 완성해 발표

했다. 2년간 10억엔의 몸값으로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데려온 우타자 알렉스 라미레스(34)를 4번에 두고 좌타자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와 이승엽을 3, 5번에 배치하려 하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었다.

하지만 이승엽이 대만 타이퐁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에서 23타수 11안타(타율 0.478), 2홈런, 12타점의 맹활약을 펼치는 동안 일본에 남은 라미레스 등 나머지 선수들이 시범 13경기에서 최하위(2승8패3무)로 처지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문제는 역시 4번이다. 불에는 힘을 내지 못하는 전형적인 ‘슬로 스타터’ 라미레스는 이 기간에 좌익수 겸 4번으로 꾸준히 출전했지만 타점과 홈런 없이 타율 0.270에 그쳤다. 안타도 안타지만 여전히 ON포(오 사다하루·나가시마 시게오) 향수가 강한 요미우리가 13

경기 동안 홈런을 2개 밖에 치지 못했다는 점이 작지 않은 불안을 던지고 있다. 요미우리의 시선이 이승엽과 아베 신노스케가 돌아오는 18일 이후 시범경기에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7일 일본으로 건너간 이승엽은 19일 야쿠르트(메이지진구 구장), 20일 요코하마(요코하마스타디움)와 잇따라 시범경기에 출전한다. 이병규와 올해 첫 대결은 물론, 1998년 이후 10년만의 임창용과 맞대결도 기대를 모은다.

2006, 2007년 2년 연속 4번 타자를 맡아 개막전 홈런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승엽이 남은 경기에서 보일 활약에 따라 타순이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한 셈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프로골프 투어 내일 중서 ‘티업’

대회와 상금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세계 5대 투어 반열에 오른 한국프로골프 코리아 투어 2008년 시즌이 20일 막을 올린다.

올해 90억원에 육박하는 상금을 내걸고 20개 대회를 치르는 코리아투어 개막전은 상하이 실포트골프장(파72·7천197야드)에서 나흘간 치러질 한중투어 KEB인비테이셔널. 한국 외환은행이 타이틀스폰서를 맡고 한국프로골프투어와 중국 오메가차이나투어가 함께 주관한다.

출전 선수는 코리아 투어 소속 선수 70명과 오메가차이나투어 소속 선수 60명, 그리고 중국 아마추어 국가대표 선수 5명 등 135

명이다. 눈여겨볼 스타는 상금왕 2연패를 목표로 내세운 김경태(22·신한은행)가 꼽힌다. 김형선(28·삼화저축은행)과 배상문(23·켈러웨이), 홍순상(26·SK텔레콤), 김창운(25·힐라코리아) 등도 KEB인비테이셔널 우승으로 상금왕에 도전하겠다는 다짐이다.

이와 함께 국내 투어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김형태(31·테일러메이드)와 올해 새로운 강호로 등장할 것으로 점쳐지는 황인춘(34·토마토저축은행) 등 ‘30대’ 선수들도 만만치 않다.

한편 김중덕(47·나노소울)과 강욱순(41·삼성전자), 박남신(49·테일러메이드) 등 노장들도 ‘40대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국영 CCTV를 거쳐 국내에는 KBS2 TV로 실황중계된다.

이형택 세계 5위 꺾고 16강

ATP 퍼시픽 라이프오픈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32·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퍼시픽 라이프오픈(총상금 358만9천달러)에서 세계 랭킹 5위 다비드 페레르(스페인)를 물리쳤다.

세계 52위 이형택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 테니스가든에서 열린 단식 3회전 페레르와 경기에서 2시간50분의 대혈투 끝에 2-1(7-6(5) 6(5)-7 7-6(3))로 승리, 16강에 올랐다. 이 대회는 일반 투어 대회가 아니라 단식에 128명이 나와 겨루는 마스터스대회로 성격에 따른 랭킹 포인트가 높다.

2003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마스터스 16강에 이름을 올린 이형택은 페레르와 상대 전적에서도 2승1패로

오히려 앞서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자신보다 상위 랭크 세 명을 연달아 격파한 이형택은 세계 35위 스타 니콜라스 피안카(스위스)와 8강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됐다. 이형택은 지난해 비엔카와 처음 맞붙어 1-2(3-6 6-3 1-6)로 졌다.

골프·연도 회원권기대 전문기업
특별회원권
최저 '특별회원권'에 방문객의
에서 활동한 경기장 및 모이레프르티움
으로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승수에 밀리던 대한민국의 최고의 거점소
가 되었습니다.
상담
문의 (062)351-0095

전병두 7K ‘호투’ KIA, SK에 3-1 승

KIA타이거즈의 전병두가 18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의 시범경기에서 5와 3분의 2이닝동안 단 2개의 안타만을 내주며 삼진 7개로 1실점하면서 선발 가능성을 높였다. 팀은 전병두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이범석-양현종-곽정철의 호투에 힘입어 3-1로 이겼다.

출발은 불안했다. 전병두는 1회 첫 타자 정근우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허용하고 김재현, 채종범에게 볼넷 2개를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회부터는 공격적인 피칭을 통해 고질적인 사사구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투구 밸런스가 맞지 않

아 포수 머리 위쪽으로 공을 던지는 등 문 제점을 노출했지만 21명의 타자를 상대로 7개의 삼진을 뽑아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피칭을 보였다. 전병두는 0-1로 팀이 뒤지고 있던 6회말 2사 상황에서 마운드에 내려오면서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다.

KIA는 6회말 첫 아운 행운을 놓치지



(이승엽)

않았다. 유격수 나주환이 강동우의 평범한 병살타성 타구를 2루수 정근우에게 악송구하는 틈을 타 볼넷으로 출루한 김중국이 3루를 밟았다. 김선빈의 희생플라이와 1루수 옆을 빠져 나가는 장성호의 2루타로 KIA는 순식간에 3점을 뽑아 내며 승부를 뒤집고, 2연승을 달렸다.

대전구장에서 벌어진 한화와 우리와의 경기는 3-2로 한화가 승리했고, 롯데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홈 경기에서 LG를 4-2로 이겼다. 삼성은 잠실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경기에서 8-4로 이겨 3연승으로 시범경기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